

목표달리다

군산항, 작년 물동량 전년대비 6% 증가 1960만5000톤 처리

지난해 군산항 물동량이 2015년에 비해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물동량은 1960만5000톤으로 2015년 1849만7000톤보다 6% 증가했다. 전체화물중 수출은 차량 및 부품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380만톤) 올랐으며 수입은 양곡, 슬래그, 당류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7%가 오른 1242만4000톤을 기록했다. 수출입 화물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8% 증가한 반면 연안화물은 338만1000톤으로 4% 감소했다. 주요 수출화물인 자동차 전체물량은 19만938대로 전년대비 3% 줄었으며, 회사별로 보면 기아자동차가 16% 증가했고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9%, 31% 감소했다. 주요 수입화물인 사료원료는 459만2000톤으로 5% 줄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군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한다.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산시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 조례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등, 펜스, 관광안내표지, 방향유도표시, 공사기림막 등)과 공공조형물(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미술 등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내달 24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가 농림축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받는다. 대상사업은 식량, 원예·식물, 임업·산촌, 농촌개발, 축산 등 5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대상자는 농림축산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종사자 등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및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 추진부서(농정과, 산림복지과 등) 또는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설 명절 위문품 전달 행사

익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설을 앞두고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랑나눔 위문품'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의의 애환을 위로하고자 익산경찰서와 협력단체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신규병)가 준비한 위문품을 각 세대를 방문해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의 뜻을 함께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성중 서장은 "북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인들의 큰 관심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안협력위원회의 협조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영동·영화동 인근 빈 상가 늘고 도심 슬럼화

“시 차원 돌파구 마련 절실”

구도심을 중심으로 군산의 명맥을 이어온 영동과 영화동 인근에 빈 상가들이 늘고 도심 슬럼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군산시의 처방은 골뎠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저녁 7시, 군산시 중앙로에 위치한 영동 패션거리를 방문해보니 한 참 사람들로 붐비고 활력 넘쳐야 할 시간에 고작 4명의 소경객만이 눈에 띈다. 한때 소경객들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며 군산의 대표적 상권으로 자리했던 구도심은 불이 꺼진 채 텅 빈 상가만 늘어나고 찾는 사람의 발길이 딱 끊겨 쓸쓸스러울 정도다. 설 대목이 코앞이지만 이 지역 상가들은 한집 걸러 한집씩 문을 닫거나 폐점되어 텅텅 비어있고,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상가들도 대부분 임대를 내놓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영동상가 변영화에 따르면 총 90곳의 상가 중 최근 영업부진 등으로 문을 닫은 상가는 30여 곳이 넘고, 그나마 유지 중인 상인들도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오는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사실상 문을 닫고, 내년 4월 동군산 지역에 롯데아울렛이 개점을 앞두고 있어 이 지역 상인들은 과연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의류업 종사자는 “상권이 수송도로 이동한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왔다”며 “지금처럼 매출이 급감해 하루 10만원을 넘기기도 힘든 것은 수 십년 장사를 하면서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영동상가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영화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직 초저녁으로 손님맞이에 바쁠 시간이지만 문을 닫은 식당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찾아 볼 수 없어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옛 군산시청 인근 영화동은 광복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으나 시청 이전과 수송 상권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가 줄면서 문을 닫은 점포

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옛 원 도심지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오는 2018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다양한 동군산 지역에 롯데아울렛이 개점을 앞두고 있어 이 지역 상인들은 과연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의류업 종사자는 “상권이 수송도로 이동한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왔다”며 “지금처럼 매출이 급감해 하루 10만원을 넘기기도 힘든 것은 수 십년 장사를 하면서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영동상가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영화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직 초저녁으로 손님맞이에 바쁠 시간이지만 문을 닫은 식당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찾아 볼 수 없어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옛 군산시청 인근 영화동은 광복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으나 시청 이전과 수송 상권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가 줄면서 문을 닫은 점포

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옛 원 도심지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오는 2018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다양한 동군산 지역에 롯데아울렛이 개점을 앞두고 있어 이 지역 상인들은 과연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의류업 종사자는 “상권이 수송도로 이동한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왔다”며 “지금처럼 매출이 급감해 하루 10만원을 넘기기도 힘든 것은 수 십년 장사를 하면서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영동상가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영화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직 초저녁으로 손님맞이에 바쁠 시간이지만 문을 닫은 식당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찾아 볼 수 없어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옛 군산시청 인근 영화동은 광복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으나 시청 이전과 수송 상권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가 줄면서 문을 닫은 점포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3월말까지 해빙기시설·안전취약시설 등 집중점검 추진

군산시는 오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3년부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안전신고 및 제안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등을 시행해왔다.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용벽, 급경사지 등 해빙기시설과 전통시장 요양병원, 노후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월부터 4월까지였던 추진기간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월 중순에서 3월말까지 해빙기 기간 안전대책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준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고, 시

설물 관리부서에서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 각지대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후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이나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안전사고와 대규모 재난을 예방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의 참여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안전신고 및 제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국내복귀기업 해외수입업체 발굴 사전회의

익산시는 24일 오후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 등 7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얼리 등을 수입하는 해외수입업체 발굴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해외수입업체 발굴 사업'은 KOTI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내복귀 기업 활성

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기업들은 바이어 수주물량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좀 더 폭넓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투자 주얼리 기업 등의 정착을 견고히 하고, 더 나아가 추가 파생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역사대로 패션산업은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문화와 같이 연결되어 변천해 이어지고 있다”며 “패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 일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21개 사업에 54억원 투자

군산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5개 사업에 29억원, 돌봄서비스 3개 사업에 23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3개 사업에 8억원 등 21개 사업을 운영하며 총 54억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이용대상자 모집은 연중 이뤄지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4인가구 527만 원) 또는 140%(4인가구 614만8000 원)이하이며, 사업별 연령, 가구특성 등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해 이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익산 곳곳 사랑나눔 줄이어

설 명절을 맞아 익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하는 후원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익산시 어양동에 소재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총회장 김주철(은)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선물꾸러미 30박스(100만원 상당)를 어양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어양동희망동행 위원들은 기탁 받은 선물꾸러미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17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성악곡 강태욱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김 300박스(200만원 상당)를 1월 24일 익산시에 기탁했다. 기탁 받은 물품은 중앙·평화·인화동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읍

면동에서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강태욱 대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기탁하고 있으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지역에 감동을 주고 있다. 금마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금선)는 1월 24일 '설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를 갖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72세대에 떡국용 가래떡 150인분을 방문 전달했다.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동길)는 관내 홀로 계신 독거노인 30가구에 시댁의 떡국 떡(각 2kg)을 전달했다. 이날 독거노인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한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세대를 방문하여 떡국 떡을 전달하고, 한파 속 인부를 물으며 따뜻한 마음을 내쳤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2017학년도 등록금 동결

원광대학교는 2017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놓고 지난 23일 등록금심의위원회(학교 4명/학생 3명/외부인사 2명)를 개최한 원광대는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 부응 및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고, 2012년 6.3%, 2013년

0.6%, 2014년 0.53% 인하에 이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서 동결을 확정해 원광대는 9년째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통하여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광대는 수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은 발전기금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 대학의 고유기능인 연구, 교육, 사회봉사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중단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호원대, 등록금 동결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학생 대표단 외부 전문가, 교직원 등 7인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호원대는 2012년 이후 6년 연속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유지하게 됐다. 호원대는 2012학년도 등록금 3.2% 인하 이후 2013학년도에는 1.78%, 2014학년도 0.7%로 등록금 인하를 이어오다 2015학년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했다. 개교 40주년의 호원대는 폭넓은 교

내 장학혜택을 통해 신입생의 면학을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우수자에게 내신장학금(수시모집) 및 수능장학금(정시 및 추가모집), 출신고교 학교장 장학금(수시 및 정시모집), 인당장학금(전북권 전체 및 충남 인접지역 고교 졸업자) 등의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희성 총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익산시가 시유지인 모현동 저류시설 상부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로 해 예산절감과 함께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게 됐다. 모현동은 익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구)익산보건의소가 사용했던 청사를 2001년부터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신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시 재정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현을 시장이 모현 우수저류시설 공사 추진과정에서 저류시설 상부를 활용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

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의견에 따라 익산시는 국민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복지센터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모현동 부지면적은 4854㎡에 지상4층 건물 연면적 2300㎡정도 규모로 주차장 등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 1월에 착공해 2019년 12월 완공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 사무실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갖춘다. 정현을 시장은 “설계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를 건립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시민중심의 행복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